



## 비즈 프리즘 | 연말 성탄 마케팅 시작한 백화점업계

# 눈꽃조명·트리... "백화점은 벌써 크리스마스"

침체된 소비 심리 위한 마케팅 강화  
갤러리아, 펜디와 협업 조형물 공개  
롯데백, 외벽에 대형 리본 조명 설치



연말 대목 시즌을 앞두고 백화점업계의 이른 크리스마스 마케팅이 한창이다. 펜디와 손잡고 선보인 갤러리아명품관의 크리스마스 조형물(왼쪽)과 외벽에 대형 리본 조명을 둘러 선물 콘셉트로 꾸민 롯데백화점 본점.



사천제공 | 한화갤러리아·롯데백화점

백화점 업계가 연말 대목 시즌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고객의 백화점 방문을 유도해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사넬, 불가리, 루이비통 등 매년 명품 브랜드와 협업해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형물을 선보이는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 명품관은 올해는 펜디와 손잡고 상들리에를 콘셉트로 한 크리스마스트리를 선보였다. 12m 높이 대형 상들리에 크리스마스트리에 펜디의 알파벳 로고와 상자가 장식처럼 달려 있다. 건물 외벽은 상자 형태의 펜디백 가방을 모티브로 한

그라피크로 꾸몄다. 여기에 펜디의 상징 색상인 노랑과 연분홍색 조명을 비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욱 살렸다. 현대백화점도 11일 서울 무역센터점 정문에 10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다. 진저맨 쿠키들이 오븐 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콘셉트로 제작했다. 롯데백화점은 서울 소공동 본점 외관

과 주변을 '선물'이라는 테마로 장식했다. 외벽에 250m 길이의 대형 리본 조명을 둘러 크리스마스 선물 콘셉트로 꾸몄다. 지하 입구부터 초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눈꽃 조명으로 장식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진다.

일러스트 삽화가인 김민지 작가와 손잡고 핀란드 구전 요정 '폰푸' 캐릭터를 제작해 건물 안팎 장식에 활용했다. 영

플라자 2~6층 외벽에 설치한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폰푸가 산타클로스를 도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행복을 배달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상영한다. 이정혜 롯데백화점 디자인실장은 "올 한해 코로나19로 지친 고객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동화적인 콘셉트로 희망과 힐링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 엔씨소프트, 음악게임 '퓨저' 북미·유럽 출시

엔씨소프트는 북미 법인 엔씨웨스트를 통해 가정용 게임기(콘솔)·PC 게임 '퓨저'(사진)를 북미와 유럽에 출시했다. 퓨저는 미국 개발사 하모닉스가 개발한 인터랙티브 음악 게임이다. 가상의 뮤직 페스티벌 무대에 디제이(DJ)로 나서 보컬, 베이스 라인, 악기 사운드, 비트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믹스할 수 있다.

게임에는 빌리 아이리시, 콜드플레이, 저스틴 팀버레이크, 마론5, 퍼펄 윌리엄스, 톤즈 앤 아이, 휘트니 휴스턴 등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노래 100곡 이상이 수록됐다. 소셜 기능을 통해 게임 플레이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공유할 수 있다.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4(PS4), 엑스박스 원, 닌텐도 스위치와 PC에 동시 출시됐다. 차세대 콘솔 기기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 X·S에서도 즐길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농심켈로그 체크 파맛, 유튜브 워스 어워드 수상



농심켈로그는 체크 파맛(사진) 캠페인이 구글 주최의 '2020 유튜브 워스 어워드'에서 '베스트 YouTube 신규 브랜드 론칭' 부문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베스트 YouTube 신규 브랜드 론칭' 부문은 신규 브랜드, 제품, 서비스 론칭 시 유튜브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비즈니스에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광고 캠페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농심켈로그 체크 파맛 캠페인은 소비자 요청으로 16년 만에 출시된 한정판이라는 흥미로운 배경을 적극 활용하고, Z세대와의 접점을 확장해 높은 화제성을 달성한 점을 인정받았다.

서지혜 농심켈로그 마케팅팀 차장은 "농심켈로그는 앞으로도 트렌드에 발맞춰 소비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즐거움을 주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 CJ제일제당 3분기 영업이익 72.2% 상승...4분기도 전망 긍정적

(전년 동기비, CJ대한통운 실적 제외)

사업구조 혁신 성과로 영업이익 급증  
글로벌 식품, 세 분기 연속 1조 넘어

CJ제일제당은 10일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성장한 6조 3425억 원, 영업이익은 47.5% 늘어난 4021억 원(연결기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실적을 제외하면 매출은 8.8% 늘어난 3조 7484억 원, 영업이익은 72.2% 늘어난 3117억 원이다. 식품·바이

오 등 해외 사업과 국내 가공식품 매출이 크게 성장했고, 전 사업부문에 걸쳐 사업구조 혁신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식품사업부문은 지난해에 비해 7.4% 증가한 2조 389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글로벌 식품 매출(슈완스 매출 6646억 원 포함)이 13% 늘어난 1조 204억 원을 달성하며 올해 들어 세 분기 연속 1조 원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집밥' 트렌드의 지속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늘었고,

선물세트 실적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며 가공식품 매출이 6% 늘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강도 높게 진행해온 수익성 개선 전략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은 34% 늘어난 1758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슈완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바이오사업부문 매출은 7713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3% 늘었고,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며 약 51% 늘어난 79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글로벌 사료용 아미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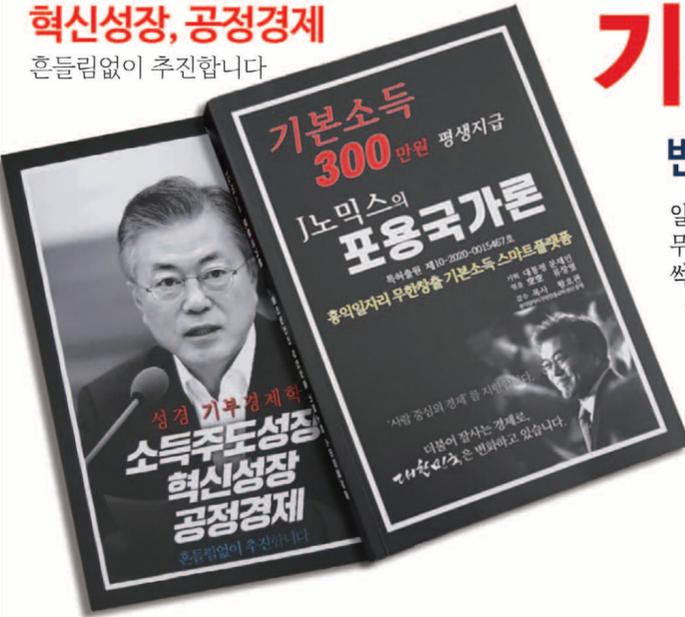
산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확대됐고, 트립토판, 발린, 알라닌, 핵산 등 고수익 제품군의 판매 비중이 30%까지 늘며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했다. CJ Feed&Care(사료+축산)는 중국과 베트남의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7% 늘어난 58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2019년 하반기부터 수익성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등 고강도 체질 개선을 통한 선제적 위기 대응에 나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외형 성장뿐 아니라 내실을 다졌다. 국내외 집밥 수요 확대에 따라 간편식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4분기에도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자본공유앱APP' 발명특허 등록 제10-2143479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흔들림없이 추진합니다



후손과 1030세대를 위한 인류의 유일한 단일회사 - 스마트플랫폼 하이우분투(주)

# 기본소득 300만원 평생지급

반려동물 (개, 고양이) 까지 기본소득 150만원 지급 (선착순/가구당 1마리씩)

일자리도 없는데 대학가기 위해 **수능은 왜 보나?**  
무식한 교육부야! 등신 학부모야! 철밥통 관료들야!  
씩을 때로 씹어 줌비와 다름없는 정치인들야  
이생망, 헬조선, 흙수저, 자살송을 퍼트리며 자살하는  
- 1030세대 (39세까지) 알

환경과 사람 살리는 최고품 최저가 모든 재화 및 기본소득 300만원 이상 평생 무상증여, 투자 전혀 없이 단 한명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고 전인류 반려동물 누구든 모두 선착순 자동부자 우분투 기본소득 신 르네상스 코스모스 프로젝트

총익일자리 무한창출 기본소득 스마트플랫폼  
□ 인류의 구세주  
□ 21세기 제2의 석유  
□ K-biz, K-pay, K-platform  
□ 성경기부경제학  
□ '자본공유앱APP'  
□ 선착순 자동레이기부 품앗이계

### 문의처

세계교회 대학신 "총익일자리 무한창출 교회 종교재단" 등록!!!

● 총재 황호관 목사 010-6249-5892 ● 비서실장 임승호 목사 010-5329-9097 ● 사무총장 윤병모 목사 010-5063-8831 ● 사무국장 김석만 목사 010-4277-0691 ● 본부교회 김기성 목사 010-4688-3491

● 서울 백인초 010-6462-6712 / 역삼 황비 010-5647-5428 / 김석우 원국장 010-7653-5373 / 이우자 010-9339-8649 / 신비선 010-9220-4334 / 김명배 010-8290-8801 / 강영석 010-3274-5289  
● 부산 김창주 010-9852-6452 / 백삼석 010-7309-1000 / 민영숙 010-5118-5263 / 리현성 010-3315-1517 / 심정희 010-5644-2788 / 윤영기 010-4424-7161 / 우영환 010-4741-7008  
● 창원 010-7374-4111 / 서재운 010-8770-2935 ● 대전 김진구 010-8029-0059 / 김용환 010-3742-5998 / 전달민 010-2391-8259 ● 대구 전영희 010-4846-4950  
● 울산 사명원 010-8003-5323 / 최백수 010-4830-1810 ● 창원 이철훈 010-3572-4616 / 이승현 010-5769-0532 ● 천안 김태덕 010-6258-3510 / 오명숙 010-8904-3424  
● 인천 박윤표 010-3227-0993 / 주인 용원표 010-6717-1779 / 서도원 010-3489-4190 / 김호중 010-8488-2999 ● 김포 정재호 010-6416-1888 ● 이천 박찬석 010-4707-2659  
● 원주 박윤표 010-5177-9479 ● 여주 삼근명 010-8513-3833 ● 용인 김기영 010-6285-7653 ● 수원 원만드리아 010-3435-0158 / 박우영 010-5221-8119 / 김명태 010-8005-3616  
● 경기 남부 황태도 010-6806-1931 / 노수길 010-5153-5983 ● 평강 고영철 010-5463-6952 ● 중국 충동우 010-4280-4616 / 남미유 010-6852-8897 ● 하와이 윤이나 010-8763-8742

하이우분투(주)  
Hubuntu 1644-6733